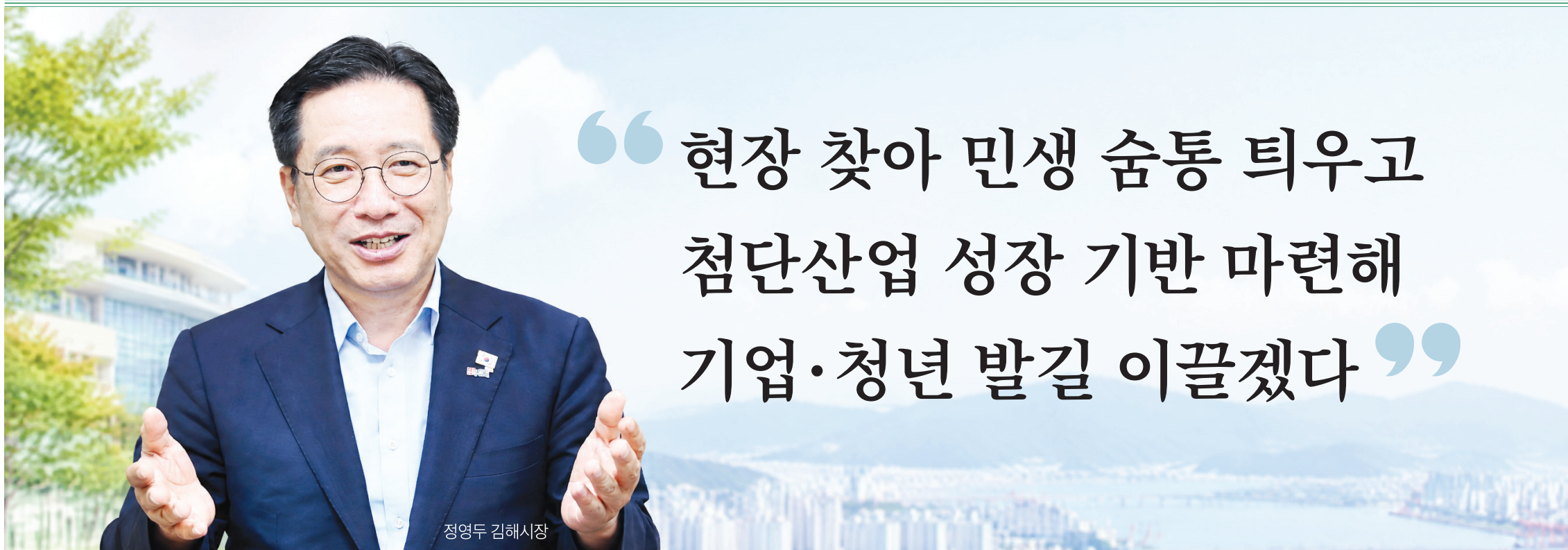




정영두 김해시장

“ 현장 찾아 민생 숨통 틔우고 첨단산업 성장 기반 마련해 기업·청년 발길 이끌겠다 ”



인터뷰 |

정영두 김해시장

김해시가 민생 회복과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해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전력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100일은 시민과 약속한 변화를 하나씩 실행하고 앞으로 4년간 김해가 나아갈 방향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시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 앞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거창한 구호보다 생계와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책상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지난 100일이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다.”

취임 100일, 약속한 변화 실행하고
4년간 김해가 나아갈 방향 다져
현장 찾아 시민 목소리 정책 반영

민생·생활밀착 분야 변화 ‘우선’
‘정성껏 헤드림 센터’로 불편 해결
공공장소 중심 금연·금주 확대

부산항·가덕신공항·철도 연계
스마트 물류 플랫폼 등 기반 마련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호소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였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고 시민들도 생활비 부담을 호소했다. 교통과 의료·복지·주거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행정이 생각하는 문제의 크기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의 크기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어르신에게는 전등 하나를 교체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출퇴근길 버스를 오래 기다리는 시민에게는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할

수 있다. 시민이 원하는 행정은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살피고 생활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라는 시정 철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시민이 존중받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도시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김해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행정의 중심을 공급자가 아닌 시민에게 두고 보여주거식 성과보다 실제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도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 10월부터는 ‘김해 정성껏 헤드림 센터’를 시범 운영해 어르신들의 전등이나 문손잡이 교체처럼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도 해결하고 있다.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의 문턱은 낮아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했으면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민생과 생활밀착 분야의 변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도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생활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해 정성껏 헤드림 센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작은 문제를 살피는 사업이다. 교통·의료·복지 분야의 개선도 이어가 시민들이 시정이 자신의 삶과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간부회의에서 금연·금주구역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금연구역이나 금주구역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과 산책로처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흡연과 음주가 간접흡연이나 소란 등으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줄여야 한다.”

“시민 이용이 많고 보호 필요성이 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관련 구역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자체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



① 정영두 김해시장(가운데)이 지난 8월 10일 폭염 가뭄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단감 재배농가에 방문했다. ② 정영두 김해시장이 지난 7월 24일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방문해 전략산업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해시

-앞으로 김해의 미래 성장동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김해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준비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다. 김해는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철도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를 활용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비롯해 전력반도체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기업이 모이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사업은 한 시장의 임기 안에 모두 완성하기 어려운 만큼 더 늦기 전에 시작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6만 김해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약속한 일을 하나씩 실행해 결과로 보여주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교통과 의료·복지 등 생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00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말보다 행동

으로 보여주겠다. 4년 뒤 시민들이 우리 삶이 나아졌고 김해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일과 김해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 정영두 김해시장 약력

▶ 인적사항

- 출생년도 : 1963년 (만 62세)
- 출생 : 김해군 생림면

▶ 학력사항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주요경력

- 김해시장(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현)
- 이재명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경제특보(전)
- BNK 경제연구원 원장(전)
- 경남은행 이사회 의장(전)
- 제11대 김해상공회의소 의원(전)
- ㈜휴롬 대표이사 사장(전)
- 노무현정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행정관(전)